

사람중심 생활도시 / 시민주의 자치분권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 무엇을 해야 하나?” 녹취록**  
**-서울시정의 방향과 과제 설정을 위한 서울YMCA 토론회-**

- 일 시 : 2011년 11월 16일(수) 오후 2시 - 5시
- 장 소 : 서울YMCA 2층 친교실
- 주 최 : 서울YMCA 시민정치운동본부
- 문 의 : 02-732-2941, theway@ymca.or.kr, www.ymcasimin.or.kr

<Session 1 : 14:00~15:20>

- 사 회 : 신종원 실장(서울YMCA 시민중계실, 시민사회운동부)
- 1. 발 제
  - 서울시정 방향에 대한 제안  
: 조명래 교수(단국대학교 도시계획학과, 서울YMCA 시민정치위원장)
- 2. 토 론
  - 김진애 국회의원(민주당)
  - 김수현 교수(세종대학교 도시대학원, 희망서울정책자문위원장)
  - 신 울 교수(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Session 2 : 15:30~16:50>

- 사 회 : 신종원 실장(서울YMCA 시민중계실, 시민사회운동부)
- 1. 발 제
  - 서울시정 과제에 대한 제안  
: 심상용 교수(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서울YMCA 시민정치위원회)
- 2. 토 론
  - 서왕진 정책특보(서울특별시)
  - 이광재 사무총장(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 임승빈 교수(명지대학교 행정학과)

## <Session 1 :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정의 방향 토론>

### 신종원 실장(사회자):

서울시정의 총론적인 방향을 점검하는 토론회와, 서울시가 구체적으로 앞으로 추진해 가야될 정책을 짚어보는 토론회를 Session 1, 2부로 나눠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선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1부 순서를 맡아주실 여러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서울YMCA 시민정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단국대학의 조명래 교수님께서 첫 번째 발제를 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희망서울정책자문위원회를 맡아서 서울시 박원순 시장의 기본 틀을 잡고 점검해 가는 역할을 하고 계신 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의 김수현 교수님 토론자로 나오셨습니다. 요즘 정치평론으로 아주 바쁘시죠. 또 서울YMCA도 시민정치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신윤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곧 이어 발제와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순서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 저희 토론회 패널로 박원순 시장의 소위 정책 라인 핵심 인사들이 토론자로 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에서 나오는 구체적인 얘기들이 가능하면 서울시정에 직접 반영되고 참고 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도 아까 온라인 취임을 봤습니다. 아주 재미있었고요. 뭔가 변화의 기운을 느끼게 되는 그런 취임식이었습니다. 토크쇼 같은 그런 분위기도 있고.. 저희 토론회도 그런 분위기로 진행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취임식 화면에 '시장이 시민입니다'이런 타이틀을 붙여 놓은걸 봤는데.. 한국 사회의 정치지형, 정치문화의 변화를 알리는 하나의 큰 변화 서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쨌든 오랜 기간 동안 의회 민주주의에서 국민들, 시민들이 권력을 위임한 대통령 혹은 시장.. 이런 위임을 받은 사람들에게 의한 정치가 시민들로부터 불신이 되고 이제는 시민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시민정치의 시대가 열려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바람들이 이번 선거에 많이 반영이 되었던 것 같고, 이번 취임을 보면서 그런 것을 조금씩 체감해 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우리 토론회가 향후에 서울시정의 중요한 의제, 정책들을 만들어 가는 데에 도움이 되는 토론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진행은 첫 번째 발제는 조명래 교수님께서 해 주시고요 바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조명래 교수(Session 1 발제자):

저희들이 선거 전에도 세 차례정도 토론회가 있었고요. 그 때 우리가 준비를 하면서 선거 끝나고 난 뒤에, 새 시장이 취임하고 난 뒤에 이어서 또 토론회를 개최해서 새 시장에 대해 여러 가지 정책제안을 하는 후속 토론회를 갖자라고 해서 이미 선거 전에 계획된 행사입니다.

제가 준비할 때도 참여를 하고 좋습니다만, 막상 오늘 발제문을 준비하면서 좀 기운이 떨어지는 느낌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발제문을 늘 full text를 만드는데.. 발제문을 최근에 아주 늦게 만들었고 또 개조식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토론하실 분들한테도 미리 못 드렸는데.. 그것은 그만큼 쓰기가 부담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미리 고백해 드립니다. 그 까닭은 박원순 시장이 출범한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다는 것이 조금은 앞서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어느 지점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가 분명치 않았고요. 두 번째는 옆에 계시는 김수현 교수가 지금 책임자로 있는 정책자문위원회가 정식으로 발족 되기 때문에 수많은 신세대 전문가들이, 그야말로 총명한 머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정책진단을 다 잘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하는 일에 우리가 자칫 초를 치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글 쓴다는게 조금은 조심스러웠습니다만.. 어쨌든

약속은 한 것이니까 제가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제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박원순 시장의 등장이 갖는 그 의미가 뭔가..그 의미를 단순한 시민후보의 등장이라는 것보다도 역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크게 세 가지의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박원순 시장 자신이 우리나라 시민운동 특히 진보적 시민운동의 제1세대 주자였습니다. 지난 길게는 20년 이상 시민사회에서 시민사회의 성공모델을 만드신 분이예요. 참여연대라든가, 아름다운가게라든가 희망제작소.. 그야말로 시민들이 하나의 결사체를 만들어서 우리 사회의 대안적 실천 가치를 실제 조직으로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현장에서 많은 성공을 했던 그런 경험의 소유자였고요. 사실 안철수의 도움을 받아서 시장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만 그분의 이미 시민운동가로서의 업적과 능력에 대한 것이 이미 인정이 되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등장은 그분으로 대표되는 시민사회, 시민사회가 대개는 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열렸다고 본다면 그 이후 2,30년간 시민사회 영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해왔던 뭔가의 성과가 이제는 제도정치 영역으로 반영되고 규칙화되는.. 이런 것의 시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제가 좀 어렵게 '제도정치 영역에 시민주의의 대두'다.. 뭐 이념일 수도 있고 가치일 수도 있고 세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동안 정당들이 시민사회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반영 못했는데, 시민사회가 스스로 대리권자를 만들어서 제도정치 영역에 투영시켜 내는 이런 것의 시작이 박원순 시장의 등장에 의미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느 시장과는 달리 그런 역사적인 책무를 가지고 시장에 취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등장배경과 역할의식을 충분히 갖춘 여러 가지 정책 의제의 선정, 시정운영 방식의 개선 등등이 이루어 져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정을 움직이는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토건국가의 잔재였던 이명박, 오세훈식 전시성 토건행정을 일단 마감하는 그런 것에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조금 길게 본다면 이명박, 오세훈 시정 10년의 마감과 그걸 넘어서는 복지, 사람중심 의제를 중심으로 서울시를 꾸려가는 그런 새로운 시정의 시작, 역사적인 시작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의미를 박시장이 가지고 있고요. 이것은 세 번째.. 전반적으로 시장의 리더십에 변화가 드러나는 그런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선거전에 새 시장은 '개혁적 친시민' 리더십을 갖춘 시장이 등장해야 된다고 했는데, 박원순 시장을 전제로 해서 썼던 표현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런 조건에 맞는 리더십을 갖추신 분이 박시장이라고 보고 기존의 전임 시장들과의 리더십과는 분명히 다른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6.4지방선거를 통해서 등장한 진보적 리더십들, 이른바 조금 진보적 성향의 단체장들이 진출했는데 이런 리더십의 등장을 종결짓는 역사적 의미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순한 역사적 의미가 시정운영 속에 녹아드는 것이 박원순 시장 리더십의 색깔이고 특징이고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역사적 의미를 먼저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20일여간의 박 시장은 어떤 일을 어떻게 해 왔느냐.. 그것에 대한 언론이나 시민사회의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 졌느냐.. 뭐 20일의 행보를 평가하는 것은 조금 이릅니다만 대개는 어떠한 시정을 펼 것인가, 어떤 문제점이 앞으로 대두될 것인가라는 그 징조들을 읽을 수 있기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여간에 언론에서는 '파격적 행보'라는 그런 표현들로 계속 서술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전면 실시로부터 반값등록금 실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등등.. 특히 사람중심, 복지중심의 예산안을 지난주에 발표했죠? 그런 것을 박원순 시장이 시정을 어떻게 운영 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충분히 보여줬다고 봅니다. 특히 어젠가는 40대 시민전문가 중심의 정책자문위원회가 발족 되기 때문에 이 위원회의 활동이 향후 시정운영에 굉장히 많은 색깔과 특징을 부여할 것으

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이 파격이 갖는 긍정성이 사스럽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오세훈 이명박 시정의 유산을 청산하는 그런 파격 자체가.. 기존 시장들이 해왔던 것을 지워내는.. 좋은 의미에서 지워내는 겁니다. 그냥 정치적으로 무조건 차별화를 기한다기 보다는. 또 박시장 스스로가 이런 유산의 청산이라는 말을 가끔 하셨고요. 무엇보다도 탈권위적 친시민 리더십을 그야말로 그대로 생생하게 보여줬다.. 필요할 때 현장에 가서. 노숙자 돌아가셨을 때 조문을 현장에서 하고 그런 모습 등등.. 그 다음에 그동안 금기시 되었던 진보적 의제들을 과감하게 채택을 하고 그야말로 하나쯤은 시행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그래서 최근에 FTA에 대한 반대 의견 피력이라든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그 자리에서 바꿔낸다는가 이런 것들은 박 시장의 진보적인 정치관을 보여 주기에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예산안에서는 박원순 시장 스스로가 말씀 하셨습니까 다만 '탈토건, 사람/복지 중심의 시정운영을 하겠다'라는 것을 예산안에 구조와 액수로 여실히 보여 주었다.. 그리고 시 정책을 생산하고 움직일 때 투입되는 지식들이 있습니다. 이명박, 오세훈 시장 시절에는 대개 기술 관료적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를 했고 시민들과 따뜻한 체온을 나누는 지식의 소유자들은 아니었죠. 그런 것에 견준다면 시민 사회적 전문성을 갖춘, 시민과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지혜와 정서를 갖춘 전문가들이 박원순 시장의 정책지식을 만들어 내고 할 것으로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의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많이 바뀔 것이다'라는 긍정성을 우리가 파격적 행보 속에서 읽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우려와 비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그분을 아주 부정하는, 이념적으로 부정하는 그런 측면에서 비판하는 것 하고 기본적으로 박 시장의 시정이 잘 될 것을 기대하면서 우려와 비판을 제기하는 것은 다를 수 있겠죠. 저는 후자입장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분이 취임하시자마자 특히 인사를 했었죠. 두 부시장을 지명하고 대변인까지도 임명을 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보수 언론에서도 많은 문제제기를 할 뿐만 아니라 시민 단체에서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서울시 고위직의 중용이라는 것은 한 편에서는 시정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도도 읽혀지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처음부터 개혁의 의지를 너무 후퇴시키지 않느냐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메시지가 애매한 인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대변인의 임명은, 한강사업본부장의 임명은 시민단체들이 즉각적으로 '옳지 않은 인사다'라고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오세훈 시장 시절에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가장 앞장서서.. 물론 직책이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만 한강르네상스 전도사라고 부를 정도로 그런 일을 하셨던 분이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청산하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추진하려고 하는 박원순 시장이.. 시의 대변인으로 둔다는 것이 조금 뭔가 맞지 않다.. 아마 제가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는 시민단체가 처음으로 박원순 시장 리더십에 대한 문의제기를 한 것으로 저는 평가합니다. 그래서 시 홈페이지에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비판적 기사들이 리플들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격행보는 신선하면서도 기존의 시장과 상당히 다른 면모를 보여주기에 충분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리해서 간다면 이것은 또 다른 과거 시장들의 전시행정의 모습을 달리한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제기도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격이라는 것이 준비된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이 시스템적인 어떤 개혁을 전제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에피소드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과거의 오세훈 시장이 했던 보여주기 식 행정의 반복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제기되는데.. 이것은 보수언론 진영에서 박원순 표 시정을 비판할 때 가장 집요하게 문제제기를 하는 그런 대목이 되고 있습니다.

파격적 행보가 너무 두드러지다 보니까 시장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모노드라마로 읽혀질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친시민 시장 하에서 '시민 참여의 일상화, 시민 거버

넌스의 규칙화'같은 시민이 주인공이 돼서 해야 할 그런 모습이 지난 20일간의 파격적 행보 속에는 별로 보이지 않는.. 그래서 '시장만 보인다'라는 문제제기, 우려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시정운영에 대한 전문성이 과연 어느 정도 앞으로 제대로 담보될 것인가 라는 오심도 일련의 행보 속에서 읽혀지고 있습니다. 이 분이 시민운동가로서는 정말 성공모델을 만들 수 있었지만 시장이 더 이상 시민운동가로서 활동을 해서는 안되겠죠. 하지만 20일간의 파격적인 행보 속에서는 시민단체 활동가의 활동 연장과 같은 이런 측면으로 읽혀졌기 때문에.. 혹자는 그 분이 운영했던 희망제작소의 사업방식으로 천만 인구의 도시를 다스리는 시정운영 방식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오심을 제기한 대목이 이런 전문성에 관한 불확실성을 우리가 문제제기 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박 시장은 후보시절에도 그랬습니다만 지금까지도 마을공동체 복원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걸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지만 서울은 인구 천만의 세계적인 대도시입니다. 그 차원에서 갖는 시정운영의 차원도 분명히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도감같은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대목은 상당히 전문화된 도시경영 지식같은 것, 도시계획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대목이 되고요.

예산이 파격적인 구조로 짜여 저서 발표가 났습니다만 사실 곰곰이 듣다보면 전임 시장 하에서 작년에 짜여 졌던 것과 액수의 미묘한 차이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현격한 차이다, 오세훈 시장이 약속했던 핵심사업, 이를테면 8만호 임대주택 공급 같은 것을 실제 2년 8개월 안에 실행할 수 있는 계획안..예산안으로서 받아들이기에는 분명치 않습니다. 이를테면 8만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3조원이 필요하다고 본다면.. 3조원은 예컨대 이 분이 2년 8개월 동안 시장으로서 봉직하게 되신다면 연간 평균적으로 1조원이 확보되어야 3년간 3조원이 확보 되는 것이고, 8만호를 3년 정도 나눠서 공급하게 된다면..7만 5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만 최소한 2만5천 정도는 공급 해야 되죠. 그래서 1조에 2만5천 정도의 임대주택을 첫 해 공급하는 정도가 되면 모르겠는데, 지금 실제 임대주택만 하더라도 그런 양을 달성하기에는 예산액도, 공급양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이렇게 파격적인 예산을 짤 수 없다는 한계가 있으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파격적인 공약을.. 3이내에 실행할 수 있는 예산안이 제대로, 공약 실행할 수 있는 예산이 짜여 졌냐를 본다면 그것도 아니라는.. 이런 이중적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파격을 넘어서 지속가능 혁신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프로젝트 베이스'의 일을 파격적으로 하기보다도 시스템을 변화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박원순 시장이 해야할 역할이 아닌가 싶은데.. 이명박, 오세훈 시정 패러다임을 넘어설 수 있는 혁신의 시스템화가 필요 할텐데.. 아직은 그런 것이 있기에는 시기상조일 수도 있지만 그런 기미들이 분명히 보이지 않는 불안함을 보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난 20일간의 파격적 행보 속에서 읽을 수 있는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박원순 시장이 정말 지향해야 할 핵심 시정의 지표, 방향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자리매김 하고 그 지표와 목표를 향해서 세부 과제를 꾸려 나가는.. 장기적인 목표와 단기적인 실천 과제들을 다시 한 번 조율하는 마음가짐을 박원순 시장 혹은 시에서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 오늘 이 자리를 갖게 된 중요한 의미라고 보는데요.

박원순 시장 호는 어떠한 이정표를 설정해야 하느냐. 전 첫 번째 시민주의, 시민주의가 제도정치 영역에 등장하는 것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십분 활용해서 과거의 시장과는 다른 시정운영을 가져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려서 천만 시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행정을 구현해야 하는데, 이것은 자치행정에 이른바 '시민 민주주의'혹은 '시민주의'라는 것을 끌어드려서 그동안의 국가 주도적 자치분권을 없애고 시민주의의 자치분권을 이끌어내는.. 자치의 상식과 원

리를 바꾸어내는, 이것이 박원순 시장호의 중요한 이정표다.. 그러면 시민주의 자치분권.. 이것은 제가 원래 우리나라에서 계속 여러 군데에서 발표하고 있는 새로운 자치모델을 이야기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자치권한은 중앙정부에서 권력을 이양 받아서 하는 것이지만은 지난 20년 동안 그런 자치를 했습니다만 지방자치가 별로 진전 된 것이 없어요. 여전히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으로부터 받은 권력은 군림하는 권력으로 사용하고 있지 시민을 위한 권력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이제는 지방자치의 권한이 국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에서 오는 것을 우리가 위임받아서 하는 자치의 원리가 필요하다.. 이것을 제가 '시민주의 자치분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박원순 시장은 시민사회 출신이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권력을 가지고 자치를 할 수 있는 조건을 가졌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시정의 운영방식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 드립니다. 이를 테면 행정과 시민이 함께 하는 협치를.. 그동안 협치 얘기 많이 했습니다만 실제 시정 속에 제도화 하는, 또 실제 시민들이 갖고 있는 역량과 자본들이 사사롭지 않습니다. 미국의 연방정부가 예산의 10%를 시민 봉사를 위해서 예산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 재정도 충분하지 않고 그동안 관료 중심의 자치를 해 왔다면 이제는 시민들이 십시일반 품도 팔고 더 나아가 역할도 하는 그야말로 협치의 제도화가 박원순 시장이 이룩하는 시정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울러 저는 시민주의 자치분권의 시대라는 측면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시민사회와도 굉장히 중요한 동지적 관계를 가져야 되지만은 의회와도 굉장히 중요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의회가 시민의 대표 기구입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아니라 의회를 통해서 시민의 대의성이 강화되고.. 이걸 우리나라의 대통령 중심제하에서는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영국식 의회 중심제 미덕을 박원순 시장이 살려내는 그런 시정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아우러져서 '시민주의를 구현하는 자치행정 모델의 지향'이라고 이야기 했고요.

그 다음에 시정의 의제를..그러니까 실제 프로그램이나 정책으로 추진하는 이런 사업들은 이미 시장님께서도 '토건주의로부터 복지주의로 바뀔것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설명 할 필요 없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하게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제 의견이기도 하고 여러 네티즌들이 제게 의견을 준 것이기도 한데 '생태'에 관한 관점이 빠졌다는 얘기를 여러 시민사회 구성원들이 저에게 제안하고 있어요. 전시성 토건중심에서 사람과 복지 중심으로 의제 설정을 하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좋지만 그걸 넘어서 '조직/기구의 개편', '시정운영방식의 전환'이런 것 까지 이어져야 의제 전환하는 것에 제대로 된 의미가 완결될 수 있고요. 사람과 복지를 중심으로 하더라도 생태복지.. 생태복지를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야 우리 시의 토건주의의 여러 가지 발전을 진짜 바꿔낼 수 있는 것이지.. 우리나라의 지금 보편적 복지논쟁이 환경주의, 생태주의 입장에서 본다면 너무나 철저한 사람중심의 논리입니다. 그거 하기위해서는 개발해야 되고 생산을 더 해야되는 그런 문제를 낳기 때문에 생태복지라는 좀 더 선진적인 틀 속에서 복지문제를 풀어나가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박원순 시장의 리더십에는 지속가능성이라든가 이른바 생태성에 관한 안목과 배려가 잘 드러나지 않은 우려도 있고요.

세 번째에는 시정의 여러 가지 변화를 프로젝트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가 시스템화 되는 이런 일을 중심으로 해야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박원순 시장의 역할은.. 지금까지 행적을 보면 프로젝트를 잘 디자인 했던 분입니다. 희망 제작소의 성공모델이 그런 것인데.. 이제는 '시스템 체인지 디자이너', 시스템을 변화한 디자이너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지난 15년 시민운동가로서의 행적 속에서는 드러나고 있지 않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테스트해야 할 대목 중 하나인데, 어쨌든 그런 것으로써 시장의 리더십이 발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큰 방향을 설정하고요. 시간이 너무 갔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혁신과제를 제가 14가지 정도 말씀 드려봤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지엽적인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근본적인 것도 있고 한데.. 제목 중심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친시민 시장이 되겠다고 하는데, '친시민'의 지표가 무엇인가. 시정에서 시민 체감형 시정지표를 제시할 것을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싶고 옆에 계신 정책위원장님께도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숫자를 통해서 '이런 것이 시민 체감형 시정지표다'.. 그동안 시장들이 별로 쓰지 않은 지표들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삶의 질과 권리를 규정하는 이른바 '도시 시빌 미니멈(urban civil minimum)'같은 것도 정해 놓고, 그런 것을 실현하는 여러 가지 정책 과정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박원순 시장은 동네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동네를 도시로 만들고 생활을 경제로 확장하는 시정 프로그램 운영방식이 필요합니다. 특히 마을 단위 사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걸 하려면 합법적 단위가 되어야 합니다. 다 아는 내용입니다만 저는 마을계획을 도시계획의 합법적 단위로 조례로 만들든지.. 어쨌든 합법적 단위로 만들 것을 제안하고요. 마을자치를 조례를 통해서 자치기구화 하고 예산권, 의결권, 집행권을 부여하는.. 그야말로 마을 단위의 사업을 한다면 그것을 시스템화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세 번째는 앞서도 박원순 시장이 서울을 크게 읽는 비전이 별로 없습니다. 작은 단위, 사람중심 하는건 좋은데 그런 것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지만 전체로 서울을 바꾸어 나가는 비전과 전략도 필요합니다. 저는 그것의 대표적인 예로써 제가 지난 전 시장 때부터 늘 제안 해오던 것인데 서울시청을 여전히 옮겨야 된다는 주장을 합니다. 현재 신축하고 있는 시청을 버리고 용산 역세권 중심에 건설해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서울의 공간을 다시 짜는.. 물론 임기 내에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바탕을 만드는 것을 하는.. 21세기 서울의 정말 기초를 만드는 시정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산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 공간을 다시 짜는.. 이를테면 동경의 도청사 같은 것을 현재 시청부지에 만들 것으로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역세권개발 중심에다가 만들고 그 주변에 여러 가지 공공 국제 업무단지를 만들면 그걸 중심으로 서울 공간구조를 다시 짜는.. 사대문 안은 복원하고 한강 동, 서쪽을 따라서는 이른바 '동, 서 세계화벨트' 이런 것을 조성해서 서울의 공간구조 자체를 50년만 앞으로 바꾸어 나가는 이런 큰 틀을 박원순 시장이 마련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정부기관, 공기관 이전이 아마도 내년과 내후년 만료가 됩니다. 그럼 post-Seoul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보수단체에서는 행정시 이전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이 찬성했다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공공기관 이전 하고 난 다음에 서울을 어떻게 기능정비를 할 것인가. 저는 post-Seoul 준비를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큰 틀을 짜는 것도 고민해야 되고.. 개발 딜레마를 풀고 넘어가야 됩니다.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이건 이미 많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상세한 말씀을 드리는 것을 생략하고요.

복지도시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습니다만 거기에 더하여 생태복지가 될 수 있는.. 생태부분을 조금 더 강조할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이를테면 청계천이나 한강의 재 자연화 같은 이런 것도 진실하게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의 여러 가지 비옥토 조성해서 하는 것은 너무 전문적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특히 오세훈 시장은 저탄소 녹색도시 사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추진 해 왔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책과 맞물려서..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빠져 있고 시민참여가 빠져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도시로 가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전문가 중심이고 하드웨어 중심으로 가서는 절대로 녹색도시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시민참여, 시민들 스스로 생활 속에서 바꾸어 나가고 소프트웨어를 바꾸어 나가는 방식으로 저탄소 녹색도시가 되어야 하지, 그렇지 않고는 무늬로만 녹색도시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 저는 고탄소 녹색도시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지금까지의 사업을 재 진단해서 그야말로 시민참여형 저탄소 녹색도시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 건강을 코드로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정책도 필요하고요.

8만호 임대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같은 사람은 100% 찬성합니다. 하지만 8만호라는 숫자가 중요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8만호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고, 8만호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시정이 바뀌면 8만호 공급 정책이 끝나고.. 이게 서울시의 주택 중에서 20%가 사유주택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의 구축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토지비축이라든가 재정 확보라든가 전담 기구의 창설이라든가 하는 이런 등등의 것들을 저는 고민할 것을 말씀드리고요.

서울 경제부분의 혁신, 업그레이드 시키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오세훈 시장의 여러 가지 공약 속에서는 분명히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동네경제를 활성화 하는 것도 필요하고 서울의 고유한 도시경제.. 이를테면 IT산업이라든가 문화, 유통산업을 서울형 브랜드 산업으로 지정해서 하는 것도 필요하고 아울러 국제경쟁력을 확보해내는 그런 국제경쟁 부분도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그동안 토건 리더십들이 주로 했다고 해서 우리가 버릴 부분이 아니라 그 부분의 특징을 계속 살려가는 이런 서울경제의 다원화와 전문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대중교통 관련해서는 저는 현재 버스 운영체제 전면 재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준공영제를 공영제로 바꾸어야 하고요. 지하철, 버스 등등을 아우러내는 서울 교통공사 설립을 저는 벌써 몇 개월 전부터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재정건전성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시정 내용으로 두었습니다만 저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1차적인 조건은 재정민주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채를 7조원을 줄여내고 예산구조를 바꾼다고 했을 때 그것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시민들이 합의하고 함께하는 구조로 가져가야 되지 시와 전문가만 참여해서 액수 결정해서 발표하고, 또 시민 알아서 추진하는 그런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재정건전성의 사전 전제조건은 재정민주화다.. 결국은 재정민주화를 통해서 전략해 내고 시민의 역할을 참여시켜 내고 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 부채절감 이런 것이 부수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요.. 그런 협치의 전면화.. 특히 서울시 산하의 법정위원회가 70개 정도 됩니다. 결국은 시민참여가 가장 효과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은 위원회 활동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저는 도시계획 위원회부터 여러 가지 위원회의 시민적 전문성, 시민사회의 여러 가지 지혜가 투영될 수 있는 위원회의 정리, 민주적 운영이 아주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나 이명박 시장은 시정 운영할 때 그분들의 스타일에 맞게끔..좀 거칠게 표현하면 굉장히 독단적이었습니다. 실국장회의 이런 것도 생략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인구 천만의 대도시에 시장 1인이 복치고 장구 치고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 국 단위의 업무의 자율성을 훨씬 더 분권적 자율성을 갖춘 체제운영이 필요하고요. 대신 단위별로 정책에 대해서 책임을 강화시키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강화시키는 이런 식으로 해서 분권 자율 행정시스템의 구축.. 아울러 실, 국 단위로 소규모 단위의 'GO+NGO 파트너십 위원회'를 운영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고.. 예컨대 녹지국에서 녹지사업을 하는 데에 관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녹지 행정 전반에 대해서 시민사회 지혜도 얻고 관료들이 여러 전문성도 함께 묶어 갈 수 있는 일종의 실, 국별 GO+NGO 파트너십.. 이런 기구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 의회의 역할강화.. 제가 말씀 드렸고요.

박원순 시장이 성공신화를 만들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광역자치단체들과 연대해서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 촉구하는 이런 일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서울시만 다스려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습



니다. 일본에서 혁신자치체가 60년대 후반 70년대 동경도를 중심으로 이루어 질 때 그 혁신자치체의 성과가 지역 주민들만 향유하는 그런 성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를 움직여서 중앙정부의 중앙집권적 체제를 바꾸어내는 성과를 동시에 끌어냈습니다. 따라서 박원순 시장의 개혁은 서울시 자치의 개혁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체도를 바꾸어 내는 것에 기여가 되는..그런 것도 동시에 할 것을 말씀 드리고요. 끝으로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결국은 정책의 전문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이것은 여러분들에게는 생소한 표현입니다만 서울의 지식 권력을 바꾸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장개발연구원의 연구 체제 같은 것들을 훨씬 더 민주화 시켜야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시장개발 연구원같은 데서 생산한 정책은 서울시가 필요로하는 권력화 된 지식만 생산했지 시민사회가 필요한 지식들은 정부가 생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시장개발 연구원의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아울러 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서울시를 위한, 서울 시민을 위한 정책을 생산하는 것으로서 그 운영 방식을 바꾸어야 되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시장개발 연구원 산하에 시민운동 연구실 같은 것도 만들 것을 제안하고요. 마지막으로 박원순 시장의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민사회와 협약을 해서 시장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을 정해야 된다.. 제가 알기로는 이미 공약으로 제시 한 것이기 때문에 1년에 한번 하든 두 번 하든 그렇게 해서 시장을 혈판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친시민적인 시장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을 유도해내기 위해서는 박원순 시장에 대한 시민 평가를 정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와 시장이 이에 대해서 협약을 맺어야 할 것을 마지막으로 제안 말씀 드리면서 다소 긴 발제 마치겠습니다.

#### **김진애 국회의원(토론자):**

지금 한미FTA 관련해서 긴급 의총이 계속 열리고 있는데 상당히 긴박한 상황이라서 말씀만 드리고 바로 떠나겠습니다. 조명래 교수님께서 워낙 전반적으로 얘기를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덧붙일 것은 없지만 저는 조금 전략적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박원순 시장을 만나 뵈었어요. 지나가는 얘기로.. 그 때가 보름정도 지났을 때였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별써 이렇게 잘 하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시장님이 “아직 시작도 안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이 맞으실 겁니다. 아직 시작도 안했어요. 그 다음에 한마디.. 제가 그 말은 트위터에 덧붙이지질 못했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독한지 사람들이 잘 모른다”..저는 잘 압니다. 박원순 시장이 얼마나 독한 분인지를 잘 알고 집념이나 소신이나 일하는 전체적인 일관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알기 때문에 저는 사실 박원순 시장은 110% 신뢰하고.. 여러 가지 우려도 있지만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직도 시작이 안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박원순 시장님만 아직 시작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정말 시장으로서 아직 시작도 안 된겁니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박시장님은 기껏해야 2년 반짜리 시장입니다. 또 얼마 전에 재선하시고 싶다고 얘기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년 반짜리 시장가지고는 제대로 바꾸어 놓기 어렵습니다. 4년~6년 반을 하셔도 쉽지 않습니다. 가령 프라이브루크(Freiburg)같이 굉장히 패러다임을 바꾼 도시 같은 경우에는 한 시장이 거의 10년 이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데.. 또 아시다시피 2년 반이라고 하는 과정이 무엇을 보여주기도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허니문 피어리드(honeymoon period)도 별로 없습니다. 지금 박원순 시장님이 약간의 허니문을 갖고 있지만 이 허니문이 길지 않을 겁니다. 거기다가 박시장님으로서는 위험하기도 하고 기회이기도 한 것이 내년은 정치의 계절입니다. 1년이 완전히 정치로 갈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 대해 굉장히 각박하게.. 더군다나 박원순 시장 자신이 본인이 아무리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정치적인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시장님이시기 때문에 평가가.. 절대 호의적인 평가뿐 아니라 이른바 정치적인 평가, 각박한 평가..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

습니다. 오히려 그런 점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이 아주 잘 하시면 좋은 어젠다를 만들어 내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시다시피 시민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시장 중에서 박원순 시장만큼 큰 그대를 받는 시장이 없어요. 조 순 시장님도, 고 건 시장님도 그랬고 이명박, 오세훈에 와서 시민들이 기대가 높아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시장이 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그럴만하다 싶어서 했는데.. 박원순 시장은 엄청난 기대를 받으면서 출발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것도 기회와 위기가 다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기회보다도 위기를 먼저 얘기를 드리고 싶은게.. 오늘 주제가 전세난, 주택문제들을 많이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전세문제가 지금 약간 잠복기에 있지만 곧 다시 시작하거든요. 전세문제, 그다음 뉴타운, 재개발재건축 문제가 내년 봄까지 특별한 것이 풀리지 않는다고 하면은 엄청난 시민으로부터의 비판과 실망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얘기를 드리지 말고요 이렇게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박원순 시장님의 큰 활동의 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참여연대의 축, 하나는 아름다운가게의 축입니다. 물론 희망제작소도 있고 하지만.. 참여연대의 축이 굉장히 중요했던 건 뭐냐면 사회 개혁의 맥을 확실하게 잡아서 그것을 끌어갈 세력을 분명히 해 준겁니다. 그게 사회에 어젠다를 확실히 던지는 효과가 있었어요. 또 하나 아름다운가게의 모델이 굉장히 좋았던 것이 뭐냐면 좋은 목적으로 아주 쉽게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조그만 모델을 하나 만들면 그게 마치 씨앗처럼 온 세상에 뿌려질 수 있게끔 하는.. 소위 요새 얘기하는 카오스모델 같은 것을 만들어 낸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박원순 시장님이 잘 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 시장을 하면서 짧은 2년 반 동안에 시민의 평가와 언론의 평가와 특히 정치권의 평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잘 평가를 받으려면 이 두 가지, 큰 어젠다를 제대로 설정하는 것과 거기에 세력을 만드는 것, 또 하나는 작은 모델들을 만들어서 그것이 많이 어렵지 않게 세상에 뿌려질 수 있게끔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잘 만드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솔직히 박원순 시장님이 준비된 시장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번에 서울시장이 될 때는 이런 깊은 고민과 공약을 내놓지는 못했다고 평가합니다. 너무 빨리 하셔서 어젠다와 모델을 갖고 나오시지 못했고, 지난 20일 동안에도 큰 패러다임과 스타일이 변하고 파격적으로 변하고 우리 생각이 변한 것을 보여주신 건 분명하지만.. 큰 복지, 모델이지만 실천 가능한 모델을 퍼뜨릴 수 있게끔 하는데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만한 건 아직 보여주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되시고 나니까.. 평소에는 격이 없게 얘기를 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시장님이 되시고 나니까 평소에는 그런 얘기 못하고 이렇게 나와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도 아마 주변에 가깝게 계신 분도 있고 그럴텐데.. 많이들 그런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박원순 시장님 혼자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조명래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 그동안 박원순 시장님이 해오신 희망제작소나 이런 것이 작은 아이디어의 모델이 상당히 아이디어 중심으로 돼서 시스템에 대한 것이 약하다라고 얘기하시지만 저도 동의를 하면서, 실제로 서울시라고 하는 큰 조직이 뭔가를 실제적으로 이루어내려고 하면 시스템이 안착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게 아직 보이지 않는다.. 더군다나 박원순 시장님은 이걸 생각하셔야 하는게.. 시장님이 생각하는 사람냄새 나고, 사람살고, 복지가 있는 부분의.. 이런 부분은 실현되는 데에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절대로 짧은 시간 안에 될 수가 없는데.. 박원순 시장님은 벌써 2년만 있으면 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말하자면 나름대로의 전략적인 것을 생각하셔야 되고 그것이 서울시의 체제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인사, 체제.. 솔직히 서울시의 인사는 아직.. 이명박 시장이 서울시에 처음 들어갔을 때도 인사를 완전히 바꾸는 데 1년 걸렸거든요. 과연 박원순 시장님은

지금 생각은 있는 사람 가지고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고 그 사람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인사부분, 그리고 굉장히 굵직한 아젠다를 만들 수 있는걸 해내야된다..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안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까 시의회하고의 협력관계나 이런 것만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조명래 교수님께서도 시의회와 광역 도시들간의 협력체계를 이룰 수 있는 것을 생각하셨는데 저는 국회하고 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에서도 지금 국토위에 엄청나게 ?? 되어있는게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된 법안들입니다. 모든게 bottle neck에 걸려 있어 어느 쪽에도 가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님 측도 어느 한쪽을 배팅하기가 어려워하는 단계에 있는데, 이럴 때 굵직한 것을 잡아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책과 주택, 복지에 관련된 굵직한 몇 가지의 어젠다를 던져내고 그것이 총선을 통해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이런 굵직한 행보를 보이시는게 한쪽에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편에서는 아름다운 모델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하는 데에는 그것이 꼭 서울시 산하의 시정개발연구원뿐만 아니라 관련된 시민단체, 언론, 교수님들.. 좀 더 거기서도 그런 모델을 만들어 내는 거에 조금 더 혁신적인 과정을 통해 만들어내는.. 근데 이것이 절대로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허니문 거의 없습니다. 한 번 언론이 박원순 시장 잡아먹겠다고 시작을 하면 노무현 대통령 이상으로 가혹할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그림과 시민들의 꿈을 담은 작은 희망의 씨앗들을 빨리 만들어내시라고 하는.. 이렇게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중원 실장(사회자):**

뉴타운 문제 포함해서 큰 전략적 틀을 짜지 않으면 시장 할 시간은 얼마 없는데 조만간 평가를 받아야 하는..그런데서 올 수 있는 위기.. 이런 것들 지적 해 주셨고요. 이어서 국회협력도 필요성을 제기해 주셔서 코멘트가 된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신 올 교수님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올 교수(토론자):**

지금 조명래 교수님이나 여러분들 말씀 들으면서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 것인가를 전제로 한 과제를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년되면 경제.. 엄청 어려워 질 겁니다.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이태리 총리 바뀌었다고 주식이 올라가고 이러는데.. 총리 바뀌어서 유럽 재정위기가 극복되면 사람만 바꾸면 다 끝나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의 디폴트 위험은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이태리는 유럽 연합에서 주체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재정위기는 필연적으로 금융위기로 변하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사회, 우리나라도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자영업 하는 분들 보면 9월 중순서부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 자체도 9월 중순서부터 어려워졌는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부터 꺼내는 이유는 박원순 시장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제가 볼 때 그런 상황으로부터 비롯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상황과 유리된 당위론적인 일의 추진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그렇게 큰 호응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인데요. 저는 그 부분은 내년 총선, 대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 하는게.. 박원순 시장에 대한 6개월 후의 평가가 나름대로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하다고 했을 때에는 보수언론뿐만 아니라 보수정당들이 너도나도 '봐라, 아마추어 시키니까 이렇게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금방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 할 때는 결

국 그 비난이 뭘로 이어지냐면 총선, 대선의 결과로 이어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유의를 해야 될 것이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박원순 시장의 여태까지 업적이 정말 뛰어납니다. 조교수님도 계속 말씀 하셨습니다만 저도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정이라 정치라 분리하는데 행정하고 정치는 떨어질 수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조교수님도 그렇고 김진애 의원님도 그렇고 시의회와의 관계를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치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세훈씨가 왜 실패했느냐. 정치력이 없어 실패한 거거든요 간단히 얘기하면.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서울시의회에 6개월이나 출석 안하고 말이예요. 이걸 본인이 스스로 정치력 없음을 자인한 결과입니다. 물론 오세훈 시장의 업적도 상당하다고 봅니다. 오세훈 전 시장 덕분에 줄지에 안철수 돌풍도 불고요. 지금 현재 있어서 많은 대권주자와 정당들을 사시나무 떨듯 떨게 만든 근본적인 원인은 오세훈 전 시장에게 있다고 봅니다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치력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박원순 시장이 시민운동을 했을 때는 뭐냐면 한쪽 측면에서 한쪽의 시각만을 가지고 갈등을 해결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제는 갈등을 해결하는 입장이 아니예요. 갈등을 조정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갈등을 조정한다는 것이 정치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을 할 때에는 당연히 찬성과 반대가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 찬성과 반대를 어떻게 조정을 하느냐 하는 조정력을 발휘해야 하는데 저는 그 부분이 제일 박원순 시장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상황이 어려울수록 조정력이 중요하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거버넌스, 협치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어떤 파트너와 협치를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흔히 거버넌스라고 하면 시장과 시민단체와 정부..이런 식의 협치를 얘기하지만 어려울수록 가장 중요한 것이 정책에 구체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해가지고는 호응 못 얻습니다. 내년에 더 어려워 질텐데 그것을 준비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극복은 안 됩니다. 어떻게 서울시장이 극복합니까 그럼 그건 대선 직행길인데.. 극복은 안 되지만 거기에 나오는 피해를 서울이라는 지방자치단체 장으로서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플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그건 복지일 수 있습니다. 복지일 수 있는데 또 다른 한 축은 재정적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전 시장 거치면서 재정적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다 잘 아실 겁니다. 금융위기, 재정위기가 쓰나미처럼 몰려왔을 때 재정구조마저 취약하면 더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복지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재정적자를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는가.. 저는 내년에는 이 두 가지로서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는 반값등록금은 잘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서울 출신도 아닌 사람한테 등록금 반값을 해주느냐 이런 얘기 하는데 서울은 대한민국 아닙니까. 함께 가는 사회라는 것은 그런게 아니죠. 누군가 시작을 해야지 딴 대학도 내립시다. 저도 명지대학교에 있습니다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학교 이사장이 2천5백억 학교 돈 횡령해서 감방에 있습니다. 저도 비리 사학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게 새는 돈만 막아도 애들 등록금 3분의2 수준정도로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돈이 아깝고, 거기에 돈을 집어넣고.. 그거 아닙니까. 감사원에서 철저히 대학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새는 돈 막고 애들이 등록금 덜 내도 학교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16년째 대학교수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확신합니다. 어쨌든 누군가 시작은 해야 되는데 잘 시작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방향으로 계속 나가야 된다는 것. 무상급식도 물론이고요. 이런 식의 작은 복지가 굉장히 어려워질 내년에 너무나 많아질 어려운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거 박원순 시장도 잘 알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려운 때에 시장 잘 됐다고 생각해요. 그런 분이 시장을 해

야 되는 것이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근데 너무 일을 벌여놓으면 안된다, 집중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까 김진애 의원이 말씀 하셨습니다만 2년 반이 긴 시간은 절대 아니죠. 하지만 짧은 시간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역대 시장이나 정치인들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너무 거시적인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자기가 주체할 수 없는 거시적인 목표를 세워놓는데, 박원순 시장께서는 시민운동 오래 한 만큼 정말 구체적인 목표와 방향성.. 너무 거시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 그리고 한가지 진짜 우려되는 것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시민운동은 당위론에 빠질 수 있고 학계는 뜬구름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 균형을 누가 맞춰주느냐.. 본인들은 다 옳다고 생각을 해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너무나 어렵고 위급해졌을 때 그 때 뜬구름 잡는 것.. 난 뜬구름이 아니고 이게 근본적인 처방이라고 얘기하면 설득력이 없거든요. 저는 그런 점을 박원순 시장이 가장 주의 해야되는 것 아닌가.. 끝으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신중원 실장(사회자):**

아까 김진애 의원께서는 2년 후에 박원순 시장이 평가를 받을 것이다.. 좀 널널했는데 신 율 교수님은 6개월 후에 평가를 받는다.. 6개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년 총선, 대선에 영향을 준다.. 그 얘기 듣고 나니까 박원순 시장이 아마 숨이 좀 가빠지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년 경제 위기 예측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을 감안한 서울시정을 꾸려가야 된다는 이야기.. 또 어려운 시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정치력이다.. 아까 조명래 교수님도 의회와의 관계 얘기하셨고 김진애 의원님은 국회와의 관계를 얘기하셨는데 다 공통적인 말씀인 것 같습니다. 갈등 시기에 조정과 협력의 역할을 잘 하는 정치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이고요. 정책은 무엇보다 구체성, 특히 복지나 재정문제에 대해 구체성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된다..이런 말씀으로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1부 토론을 원래는 3시 20분경에 마칠 수 있나 했는데 10분 더 오바가 될 것 같고요. 지금 희망서울정책 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바로 일을 시작하시고 앞으로 많은 일을 하셔야 될 김수현 교수님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 교수님은 오랫동안 시민사회에서 같이 활동도 하시고 참여정부 때 정책 브레인 역할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오늘 발제와 토론말씀 아울러서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수현 교수(토론자):**

네, 참 무거운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위치였으면 좋았을텐데.. 어쨌든.. 희망서울정책위원회가 출범을 했고, 옛날식 표현으로 하자면 인수위 역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궐선거의 성격상 당선된 다음날부터 임기가 시작 되버렸기 때문에 실제로는 인수위의 과정을 거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일을 수습하고.. 취임 하자마자 바로 영등포 쪽방에 가서야 되고, 여러 현장을 발로 다니셔야 되고.. 그러면서 당신이 공약하시고 또 시민들이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들을 정책으로 반영해야 되는 이중의 과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낮에는 발을 갈고 밤에는 공부해야 되는 그런 주경야독 시대가 열렸고.. 말하자면 밤에 공부하는 일에 커리큘럼을 짜는 역할을 제가 두 달 동안 한시적으로 위임을 받았습니다. 저 역시 낮에 발을 갈고 계신 분께 붙들고 ‘이것도 공부 하세요’ 이렇게 하기 어려워져 최대한 좋은 공부내용.. 잘 정리되고 완결성 있는 텍스트북을 드려서 최대한 당신이 생각하시고 시민들이 기대하는 일들이 시행착오 없이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 드리는게 저희들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제하신 분들이나 토론하신 분들의 말씀이 전 같으면 흘러 들었을텐데 지금은 가슴 절절히, 고통스럽게 한마디 한마디를 새겨두고 있습니다.

저는 우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역대 서울 시장들을 보면 시대적 과제가 있었습니다. 시장에 주어진 시대적 과제가 있었고 그 시대적 과제를 선도적으로 이해하고 잘 집행하신 분들은 대개 성공한 시장이라는 평가를 받고, 과제를 잘못 이해하거나 실행하는 데에 집행력이 떨어지면 아쉽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 시장 중에 가장 이름난 시장이 지금은 작고하셨습니다마는 김현옥 시장이십니다. 1968년부터 71년까지인가 시장을 하셨습니다. 와우아파트 붕괴로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셨는데 이분은 원조 불도저 시장이셨습니다. 그 분은 그 시대에는 그 역할이 맞는 역할이었습니다. 그 분이 청계천에 고가도로를 만드는 역할도 하였고 그야말로 하나하나씩 판자촌을 철거하고, 밀어내고.. 그 시기가 언제냐 하면 서울 인구가 매년 8%씩 늘어날 때였습니다. 결국 서울이 한국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의 인프라를.. 성장의 팔이 되는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었고 그 역할을 그 분은 성실히 성공적으로 하셨다고 봅니다. 물론 다른 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불도저로 인권을 뒤흔고 없이 그렇게 갔느냐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시대에 맞는 역할을 하셨다고 봅니다. 최근으로 돌아오면 이명박 시장께서도 그만한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물론 '청계천이 자연하천이나 조경하천이냐' 하는 평가는 다르겠지만 어쨌든 1968년에는 청계천에 고가도로를 짓는 것이 시대정신이었다면 2003년에는 그것을 철거하는 것이 시대정신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세훈 시장도 일종의 시대정신이 있었다고 봅니다. 헌데 저희가 짐작하게는 그 시대정신이 여전히 토건형 혹은 전시형 사업이 지속되었다는 문제가 있고 달리 보면 시민들의 기대가 적체되어버렸다고 저는 봅니다. 제 시기에 바뀌어줘야 하는데 못 바뀐, 적체된 기대와 적체된 요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적체된 기대 속에서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해야 될 과제들이 적체되어 있었던 시대적 전환, 서울의 전환.. 그 전환이 뭐냐.. 사람중심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저는 상당기간 적체되어 있었고 그것으로 전환하는 숨가쁜 일이 기다리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신 올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난 40년동안 서울은 고도성장의 기억 속에서 살아 왔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은 저출산, 고령화는 이미 너무나 보편화 된 이야기입니다만 거기에는 저성장과 저성장 시대에 반드시 따라오는 양극화라는 숙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아마 박원순 시장께서 직면하게 될 큰 도전은 지난 40년 동안 도시가 확장 적으로 되어오면서 펼쳤던 시정과 이제는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양극화라는 이런 단계에서 펼쳐야 되는 시정 사이에 근본적.. 우리 사회가 잘 적응하지 못하고.. 시스템이 아직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가운데 거기에 적합한 정책영역들을 발굴하고 그게 성과를 거둘 수 있게 하는 과제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과제들이 저는 많이 있고, 그런 과제들을 박원순 시장께서 잘 이해하고 계시리라 봅니다. 조금 다른 표현을 쓴다면 수습할 과제가 있고, 대처할 과제가 있고, 동시에 미래의 비전을 펼칠 과제, 이렇게 세 개의 영역이 있다고 봅니다. 수습한다는 것은 결국 이전 시장시대 때부터 시대정신과 어긋나서 누적되어 있었던 문제들이겠지요. 예를 들면 뉴타운 문제.. 이건 가히 수습이라고 해야 될 정도의 과제라고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건 박 시장께서도 신문에 인터뷰를 하셨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뉴타운 방식은 안되지 않느냐.. 근데 8.5%가 거주하는 지역을 불과 4주만에 철거하고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던 발상 자체가 지금의 이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수습해야 되고 부채 문제도 수습해야 되고, 여러 수습해야 할 과제가 있고 또 대처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민들의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신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아마 박시장님 재임기간이 경제적으로나 여러 의미에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게 있습니다. 동시에 이 문제와 분리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박시장께서 꿈꾸는 도시 즉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도시, 생태가 살아

숨쉬는 도시..이런 도시를 또한 만들어야 되는, 그 비전을 실현해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과제들의 중첩속에서 박 시장이 출범하였고.. 저는 지금 어떻게 해서 이걸 풀어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그런 말씀을 드릴 게 아닙니다마는 적어도 박시장님을 포함해서 그 분을 시장으로 만드셨던 여러분들, 나아가 시민들 모두가 이런 방향에 대한 기대가 있고 또한 이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희망이 있다, 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2달 동안 위원회도 열심히 준비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해 주시고 발제해주신 내용들이 저희들에게 채찍질이긴 하지만 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자극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신종원 실장(사회자):**

김수현 교수님께서 시대정신을 강조하는 것이 참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적체된 시민들의 요구, 기대.. 오늘의 시대정신을 사람중심으로 잡고 수습할 과제와 대처할 과제, 그리고 비전을 만들어 가야되는 과제.. 말씀 듣고 보니 준비를 많이 해 가시고 있는 것 같고요. 큰 기대를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와 토론을 한 바퀴 돌면서 1시간 15분을 보냈습니다. 예상보다는 조금 길어졌는데요 5분정도 쉬었다가 바로 이어서 2부 토론회를 진행하겠습니다.

1부 끝

=====

## Session 2 :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정의 과제 토론

**신종원 실장(사회자) :**

박원순 시장 취임이후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 무엇을 해야 하나? 토론회를 가지고 앞서 Session 1부에서 조명래 교수님의 발제와 김진애 의원님, 김수현 교수님, 신율교수님의 토론으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Session 2부에서는 서울시가 정책으로 들여다바야할 정책과제중심에 토론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2부 토론회는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실 분들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발제는 상지대학교에 계시고 서울YMCA 시민정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심상용 교수께서 발표하여 주시겠습니다. 토론은 명지대 행정학과 임승빈 교수님, 두 번째는 한국매니페스트 실천본부의 이광재 사무총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오랫동안 저희들과 함께 시민사회 단체 일을 하시다가 이번에 박원순 시장 정책특보로 일을 하게 되신 서왕진 정책특보님 나와 주셨습니다. Session 1부의 김수현 교수님도 정책위원회에 계시고요, 서왕진 특보는 공무원이시고 김수현 교수님은 정책자문 역할임으로 서왕진 특보는 공직자로 신분이 바뀌어서 박원순 시장의 정책비서로 많은 역할을 하셔야 할분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들이 서울시정에 잘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상용 교수님 발제 부탁드립니다.

**심상용 교수(Session 2 발제자) : 발제문으로 대체**

### 신종원 실장(사회자):

심상용 교수의 발제는 주로 서울 시민생활 최저선에 답을만한 그런 내용으로.. 모든 분야를 다 담지는 못했지만 주로 시민참여, 복지, 교육 이런 차원에서 짚어주셨습니다. 복지,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 주거, 아동, 보육, 장애, 노인 혹은 전달체계에 대해서 짚었는데.. 이런 아이템이 서울시 정책에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도 있고.. 그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토론 순서는 임승빈 교수님, 이광재 총장님, 서왕진 특보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임승빈 교수님께 토론 부탁드립니다.

### 임승빈 교수(토론자):

3주 전인가 신 올 교수님과 우리 대학 수시 입학생들 면접을 봤어요. 오전에 한 학생들은 소위 말해서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 학생들이었는데.. 신 교수한테 묻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인생에서 인제가 가장 어려웠냐'고. 18살이 막 된 애들한테. 부모가 다 없고 소녀가장, 아버지가 폭력적이어서 동생들 데리고 나와서 사는 소녀가장,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치매여서 손잡고 다니는 학생.. 그 가운데서 불쌍한 애 5명 중에 한명 잡으라고 하니 진짜 힘들겠더라고요. 18살인데 모든 걸 다 극복한 것 같았어요. 올해엔 또 재외국민 수시를 받았어요. 재외국민은 아시다시피 부모가 해외에 이주하신 케이스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수능을 피하기 위해서 유학을 갔고 한국인학교 다녔으니까 대화도 못하고 네트워크도 안되고 돌아와야 되는데 한국 말을 더 잘하고.. 우리가 많이 기회균등이라고 하는 것이 생긴 것이 다행이고 그런 부분을 많이 확대해야겠다는 생각이 든게.. 결국은 스티브 잡스도 그렇고.. 오전에 수시 봤던 아이들이 결국은 우리 학교의 명예를 높이고 나아가서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들이 한결 같이 답변 하는게 제가 '무슨 정신으로 여기까지 왔냐'고 하니깐 대부분 좌절 없는 희망을 갖고 사회에 대해서 약간의 지원,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 삼성문화재단에서 주는 장학금 이런걸 갖추고 왔어요. 제가 면접하면서 느끼게 사회복지 수요를 늘리는게 저성장으로 가는게 아니라 사실은 성장으로 가는 중요한 키워드이다.. 희망을 주고 기회를 주는게 더 나은 삶을 위한다고 본다면 사회복지 부분은 확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성장에 대한 유혹이에요. 어떤 성장이나가 중요한데.. 성장이 없으면 안 되죠. 만약에 서울에 인프라가 안 되어있고 고공들이 복원이 안 되었거나 한강변이 정비가 안 되어있으면 서울이 관광수익을 올릴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장에 대한 뚜렷한 방향성, 그리고 사회복지에 대한 정책이 잘 믹스가 되어 혼합적으로 가지 않으면, 어느 한쪽으로 치중하다 보면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봅니다.

전 행정학자 입니다마는 요즘이 정치행정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입니다. 연구과제도 많고.. 정책을 누가 만드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심 교수님과 조 교수님이 발제하셨지만 '정책을 누가 만드느냐, 누가 결정하고 어떤 식으로 집행되는 것이냐'.. 이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화하는 시기에 있다고 봅니다. 박원순 시장 선거 전날에 인터넷 뉴스매체가 저한테 '내일 선거 어떻게 예측 하시나요'하고 묻길래 제가 '박원순이 됩니다'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아냐고 물어서 박철수라도 됩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시민들이 박원순을 뽑은게 인물로 뽑은게 아닙니다. 인물로 봐서는 더 잘 생겼죠 나경원씨가. 그럼 뭘 보고 뽑았느냐.. 20%가 80%를 이끌어간다는 기존의 패러다임이 8할이 2할을 이끌어 간다는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는 것. 제가 수업시간에 학생들한테 수업시간에 자주 물어보는 것이 아침신문 보고 왔냐고 물어보는데 60명 가운데 1명 봅니다. 조중동 보냐고 했더니 0명이에요. 그런데 애들은 다 잘 알아. 어떻게 아느냐 하면 SNS



나 새로운 매체를 통해서 압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과거에는 입법부와 사법부 등 2할이 우리사회를 지배했다고 본다면 지금은 8할이 바뀌고 있어요. 당연히 박원순 개인이 아니라, 학생들한테 '너희들이 바꿨다'라고 했어요. 20, 30, 40이 바꾼거지 2할이 바꾼게 아닌 시대가 온겁니다. 2할 안에는 YMCA도 들어갑니다. 거대 시민사회 단체도 2할에 들어갑니다. 시민사회 단체들이 위기에 빠진게 뭐냐면 2030이 없어요. 후속 세대가 없고 정당도 없어요. 그럼 다 어디 갔느냐.. 다 안철수씨, 법륜스님 콘스트에 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성 정당이나 제도에서 만들어지는 정책이 전혀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것이죠. 2할인 사람은 8할을 모르니까.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정이 더욱 더 새로운 IT라든가 새로운 매체가.. 사실은 거기서 많은 정책 아젠다가 개발되는 것에 대해서 놓치면 안될 것이다..

근데 반론도 있죠. 그건 포퓰리즘이지 않느냐. 최근에 보면 포퓰리즘적인 과잉요소 성향 같은.. 자체 정화적인 것도 있고 금방 인증에 들어가는..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스마트폰 다 꺼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하면 금방 인증에 들어갈 것 같애.. 교수 하긴 진짜 힘든 세상이다 요즘은.. 너무나도 정확히 인증에 들어가니까.. 새로운 수단에 대한 시민참여 고민을 서울 시정에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이전에 오세훈 시장이 당선될 때 오세훈 시장이 실패할 줄 직감을 했었어요. 왜 실패할 줄 알았느냐 하면 이 양반은 특하면 당선되면 관료들한테 물어봐서 잘 하겠대요. 그게 바로 올드 패러다임이죠. 아까 말씀드린 2할이 전체가 되는. 관료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박 시장님은 시민한테 물어보니까 다행인데.. 함정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제되지 않은 시민의 여론이라는 것은 위험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이 제도화 된 의회나 관료나 정치권하고 어떤 식의 정책을 만들어내서 정책을 어떻게 집행하느냐.. 저는 박원순 시장에게 대한 평가가 이제 1년 반 밖에 안 남았다고 봅니다. 선거 치를 2013년 4월은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어떤 복지관도 방문해서는 안 되고 시장이 일부러 뭘 주어서도 안 되고 행사 치르지도 못해요. 실질적으로 1년.. 심하게 얘기하면 만 1년 이예요. 새롭게 뭔가를 만들고 부시는 것 보다 우선은 지금의 시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절삭 할 것은 절삭 하시고 새로 패러다임을 만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다음 시장이 누가 오든지 시스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 막상 본인이 다루면 제일 좋겠지만.. 아무튼 앞으로 이렇게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신종원 실장(사회자):**

'정책을 누가 만드냐'라는 화두를 주셔서 시민참여 가운데 만드는 새로운 정책과정을 해야한다는 말씀인데요. 또 거기서 나오는 시민들의 의견에서는 정제되지 않은 위험성도 지적해 주셨으니까 잘 감안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이광재 사무총장님께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 **이광재 총장(토론자):**

짜증나는 10.26 보궐선거를 거치면서.. 이 선거를 왜 치러야 하는지도 모르는 선거를 치렀는데요.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양 당이 동의하면서 지원의 범위를 결정 못해서.. 주최 측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에 대한 토론을 부탁을 했을 때 최소한 서울시 의회가 박원순 시장님의 정책이나 공약들을 거를 수 있는 시간을 12월 말까지로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무엇을 할 것인가 내지는 무엇이 비판적인가하는 점 보다는 포괄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여기 오신 분들은 두 가지 정도 바로잡고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 하는게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비판이 우리 사회에 좀 많은데 어원 자체가 '시민 속으로 들어가자'라는 게 사실은 포퓰리즘의 시

작이라고 보면 '대중정치를 하고 엘리트 정치를 하지말자'라는 미국의 제안에서부터 나왔고 엘리트 정치인들이 '저자들은 인기 영합주의야'아로 비판했을 때 나왔던 단어가 포퓰리즘이다.. 그래서 포퓰리즘 이라고 해서 다 비판적 관점으로 볼 필요는 없겠다.. 지금은 대중 속으로 들어가는 정치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여기 계신 분들이 좀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매니페스토 시민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시민에게 위임된 권력들을 잘 집행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것, 선거뿐만 아니라 정책실행도 감시한다.. 이것은 헌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국체규정과 같다'라는 겁니다. 민주공화국 체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떤 연구든 어떤 전파든 위임받았던 권력들이 잘 집행하는가를 감시하는 입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상황 때문에 '나꼼수'라는 옐로우적인 언론들이 탄생을 했다고 봅니다. 소통 권력들을 잡고 있는 자아들이 소통을 제대로 안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민들을 포함한 국민들의 분노가 있지 않겠나라고 봅니다. 그러한 시점에서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한 패러다임을 많이 바꾸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매니페스토라는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출발이 한 달도 안 된 시장에게 허니문이 충분했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6월 말이면 전국 16개 시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중간평가를 계획하고 있고 공문이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박시장님 일정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 있다. '어쩔 수 없다'라는 단어는 후보측 입장의 내지는 시장님 입장으로 보이지만 어쩔 수 없는 선거를 치렀던 서울시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각박하지만 그렇게 많은 허니문 기간은 있을 것 같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 사람중심이라는 어젠다를 지난번 강금실 후보와 한명숙 후보 때도 들었고 이번에 박원순 시장님도 슬로건이 같은 '사람중심'이다. 그런데 벼락치기 선거를 치러서 그런지 '사람중심이라는 것에는 동의하겠는데 그 내용이 뭔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디테일한 본론을 들어가기 전에 오세훈 전 시장과 나경원 후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본론으로 들어가면.. 매니페스토 본부가 늘 지적했던 게 '서울시라는 것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라는 게 두 시장의 비판점이라고 지적해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공적사용에 대한 심의적 논의가 박시장님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겠다고 보고요.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민주적 환경'이 올 것이라라고 해서 제가 가끔 사용하는 단어가 '넥스트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제정민주주의라는 부분이 발제에도 있었는데요, 그런 형태도 있고..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라는 화두가 우리 사회에 많이 다가올 것 같다.. 혁신이라는 단어도 과거의 innovation이라는 단어보다는 있는 것을 다시 만드는 renovation이라는 단어가 제기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내용과 결과에 대한 의미와 박시장님의 시정 과제와 설정기가 얽혀 있는 상황에서 박원순 시장이 '실패한 시장'만 되라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실패도 경험 해 보는 시장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신종원 실장(사회자):**

잘 들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실패한 시장'만 되라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실패도 경험 해 보는 시장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광재 사무총장님이 시민세력을 선택한 것이 아닐 수 있다.. 시대적인 변화이고 겸손한 시정을 하라는 주문일 수도 있고.. 도시의 비전, 여러 패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를 해 주셨는데 도시의 발전, 도시의 구성을 담는 그런 도시비전이 필요하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토론으로 서왕진 정책특보께 토론 부탁드립니다.

#### **서왕진 정책특보(토론자):**

사실 세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시민사회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시민사회적 감각으로 토론을 하고 생각을 하다가 아까 표현하신 대로 얘기치 않았던 선거가 발생했고 선거과정에 시민사회의 대

표적 인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시민사회적인 가치나 지향,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고 추진해보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선거에 나서면서 어떻게든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참여를 했었고요. 그 중에 정책 분야를 맡아서 활동하다가 당선이 되시니까 정책 공약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일종의 애프터서비스를 해야 한다는 차원으로 참으로 애기치 않게 공무원이 된 셈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토론을 하고 대화를 할 때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식이나 사고방식이나 가치관 이런 부분들이 스스로 혼란스러울 때도 있고, 어떤 관점에서 판단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될지 어려운 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직은 많이 듣고.. 시정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신종원 부장님이나 심상용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꾸준히 시정모니터링을 해왔던 것에 비하면 저는 그런 부분들에 약하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단계라서 토론회에 나와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것이 조금 부담은 됩니다만 그래도 오늘 YMCA에서 그간 오랫동안 해 왔던 내공들을 가지고 방향들을 제안해주시는 자리라서 공부한다 생각하고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 자체가 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 교수님 발제는 매우 구체적이고 자세한 공약들을 평가 하시면서 또 방향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을 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체로 아주 구체적이고 정확한 방향제시이기 때문에 현재 이미 만들어 놓은 공약들을 능력 있고 발 빠른 공무원들께서 업무 계획에 다들 일단은 반영을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제대로 되도록 하는 데에 있어서 심 교수님이 제안하신 방향이나 내용들이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코멘트를 한다면 예를 들면 복지예산이 24%.. 그러니까 순예산 규모로 했을 때 19조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 24%이던 것을 26% 정도로 올렸다.. 공약에서 30%까지를 임기 내에 하겠다고 했는데 2012년에는 한 2%정도 올린다..대략 그렇게 되면 한 5천억 정도가 되는데, 크다고 할 수도 있고 작다고 할 수도 있는데.. 기왕에 짜여진 틀과 예산 속에서 그것을 빼내어서 새롭게 복지 쪽에 5천억을 붙이는 문제는 참으로 쉬운 문제는 아니더라.. 이런 경험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패러다임을 전시성 토건이나 불필요한 낭비성 예산 이런 부분들을 줄여서 '사람중심의 복지나 주거, 일자리 이런 분야'로 전환을 하자라고 하는.. 큰 방향들을 분명하고 그런 시도들이 되고 있지만 현실에서 부채 예산으로 반영하는 작업들은 쉽지 않더라..이런 경험을 하나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취임을 해서 업무를 시작했고 첫날 무상급식에 대해서 사인을 함으로써 그동안 잡혀있었던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이 11월부터 집행이 되게 되었는데.. 어쨌든 초기 새로운 시장이 강조하고 열심히 논의하고 추구하고 있는 핵심 분야는 복지와 일자리와 도시안전, 주거문제 이런 분야들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일단 아젠다나 방향으로 봤을 때는 과거의 건설이나 토목, 홍보나 이런 것에 비해서 사람들의 안전과 복지와 편리함 또는 안정 이런 것들을 강화하기 위한 분야들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의지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그래서 가장 먼저 강조했던 강력한 월동대책을 수립한다든지 무상급식이나 보육 부분을 우선시행 한다든지 시립대 반값등록금 문제, 비정규직 문제를 곧바로 주요정책으로 시도해 나가는 것..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그런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긍정적으로 평가 해 본다면 사실은 최근 수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당연히 가야될 정책과제나 아젠다들이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리는 답답한 과정을 겪어 왔고 어떻게 보면 절망감, 자포자기 이런 심정들도 없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상황적인 요소들에 의한 결과이긴 하지만 시민들이 좋은 시장 한 사람을 뽑음으로서 그런 답답함 들이 현실 정책과제 속에서 오히려 실현될 수도 있는 거구나 하는 가능성들을 발견하는 것.. 그런 점들은 우리 사회가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우리 사회가

중요하게 생각했고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했던 아젠다들이 시정의 중심에, 또 실질적으로 예산에 반영이 되는 것들을 보면서 가능성이나 기대를 한편으로 갖지만, 또 한편으로는 쉽게 하나만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부가적인 과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런 아젠다가 시정의 중심이 되고 예산에 반영이 되었지만 실제로 내년부터 집행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제대로 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엄연한 숙제이고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광재 선생님께서도 잘 지적 하셨지만 굉장히 급하게, 갑작스럽게 마련된 선거였고 또 새로운 시장이 오래 정치를 해 온 분은 아니고.. 물론 시민 사회에서 유사한 아젠다를 많이 논의하고 준비 했지만 구체적으로 서울 시정을 대상으로 해서 깊이 연구하거나 준비를 해왔던 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제안성이 있었고, 그런 내용들을 어렵게나마 만들어서 지금 시정 예산에 반영했지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집행하게 될 시 행정부가 그 철학이나 구체적인 정책 내용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부터 실제로 집행되는 과정에서는 우리는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 집행되는 것은 전혀 다른 그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과정을 어떻게 정확하게 만들어 갈 것이냐.. 예를 들면 ‘공공보육센터를 동별로 두 개를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에 있는 것을 추가해서 임기동안 280여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80개를 추가하는 것으로 890억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890억의 예산을 들여서 공공보육센터를 만드는 과정이 과연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 아주 효율적이고 시민들의 필요에 잘 부응하는 것으로 만들어 질 것이냐 아니면 이상한 건물 몇 개 짓는 것으로 끝날 것이냐..그건 알 수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런 점에서 그런 정책들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전문적인 내용들이 거기에 결합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 과정이 강력한 거버넌스 과정으로서 감시도 필요하고 시민참여를 통해서 함께 만드는 작업.. 이것이 충실하게 되지 않으면 어젠다로 들어왔고 예산까지 반영되었지만 결국 나오는 그림은 다른 것일 수 있겠다.. 이 점이 쉽게 환호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로 지적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앞에서 조명래 교수님께서 정확하게 발제로 지적하신 대로 의제설정이나 예산편성을 되었지만 그 단계를 넘어서 조직기구로 어떻게 재편할 것이냐.. 또 시정운영의 방식을 전환할 것이냐.. 임승빈 교수님도 말씀하신 어떻게 시스템으로 확립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그 다음 단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고려하고 있는 부분들을 말씀 드린다면, 선거과정에서도 후보는 계속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공약은 많이 나올 수 있고 아이디어도 많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실행하고 누구와 함께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지금까지 굉장히 부족했다라는 점을 지적했고 구체적인 방법과 관련된 고민들이 많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시정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 하는 문제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중에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현재 25조 5천억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부채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 졌느냐.. 앞으로 시정이라는 것이 그런 구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요. 그런 차원에서 재정 진단을 철저히 하고 예산구조를 바꾸고 특히 사업을 실행할 때 기존의 시장들이 여러 정치적 목적으로 또는 즉흥적인 아이디어로 어마어마한 예산규모가 들어가는 사업들을 벌였던 것들, 이것을 어떻게 견제하고 잘 관리해 나갈 것이냐.. 이것이 시장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입에서 뱉어 나오는 순간 그런 것들을 행정은 일단 집행하는 쪽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과 독립 되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냉정하게 판단해 줄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공공투자관리센터같은 것을 서울 시정에도 배치하자.. 그래서 시정개발연구원 안에 상시적으로.. 지금까지 투자심사위원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전문가들이 자문기구 형식으로 그것을 하다보니까 깊이 있고 꼼꼼하게 그것을 검토하고 강력하게 차단

시킬 수 있는 기능들은 약했다고 평가를 해서 '공공투자관리센터' KB에서 이미 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그것을 좀 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기구로 만들어서 앞으로는 시장이 자기가 뭔가 하고 싶다고 해서 사업을 크게 벌이는 것을 적극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객관적 시스템을 만들자.. 이런 취지가 있었지요. 두 번째로 아직까지는 별로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공약에 분명히 강조되어 들어갔던 것이 '정보공개를 철저히 하자'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정보공개 수준을 '절대로 공개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다 공개한다'. 즉 이리이러한 것은 절대 해서는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되는 것만 일부 규정을 해 놓고 나머지는 다 공개한다.. 이런 원칙으로 접근해보자라고 했던 공약이 있습니다. 물론 이광재 선생님 말씀하신대로 공약에서 급하게 진행된 내용들을 공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할 일은 아니고.. 인수위는 아닙니다마는 시정자문 과정에서 현실성, 객관성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고 하긴 해야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정보공개와 관련되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내놓으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이것이 현실화 된다고 한다면 저는 이 자체만으로 감시와 참여, 책임 이런 것들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 행정은 굉장히 불편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패러다임을 바꾸고 시스템을 만드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역시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서울 시정으로만 본다면 이명박, 오세훈 시정에서는 물론 그 나름의 거버넌스가 있었겠습니다마는 대체로 시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감시하고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관의 시민사회라든지 비판적인 전문가 그룹들과의 소통 자체가 거의 무너졌기 때문에 10년동안 시정이 이 정도까지 오지 않았나.. 25조 5천억의 부채라는 것은 그것의 결과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다시 한번 무너진 거버넌스를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희망서울정책자문위'같은 경우는 그것의 출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가질 수 있는 구체성의 부족, 또는 실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현실성의 한계 이런 것도 지적할 수 있고 시민들의 참여의 제한적 성격 이런 것들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 판단으로는 여전히 시정에 있어서 행정의 힘은 너무나 막강하고 너무나 지배적이다.. 그 힘이 너무나 압도적이고 강력하기 때문에 비록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외부 전문가나 시민들의 참여, 거버넌스를 훨씬 강화하는 것이 균형을 맞추는 데 있어서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예산구조의 재난이라든지 정보의 유통, 거버넌스의 강화 이런 것들이 새로운 시정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핵심적인 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그동안의 많은 공약들이 약속으로 끝나고 사라진다거나 하는 것을 예방하고 과도하고 그것을 집행하려고 했다가 문제가 생기는 이런 양극단을 극복할 수 있는 좀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과정들을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런 시스템을 강화하는 쪽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 **신종원 실장(사회자):**

조금 여유 있게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서왕진 정책특보님의 코멘트.. 사실 우리가 너무 많은 짐을 드린다는 느낌이 들어서 미안하기는 한데 앞으로 급한 것은 급한것대로, 그러나 천천히.. 정책과제들은 그렇게 해 가시길 바라고요. 몇 가지 코멘트 한 게 대규모 투자감시.. 공공투자관리센터를 둔다든가 이런 것들은 필요한 조치이고 어떤 방향으로든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각도로 뒤집어보면 몇 천억, 몇 조원 들어가는 사업들을 다른곳에 쓰면 얼마나 시민의 삶이 달라졌을까.. 나라뻘길 사업 하는데에 2조 5천억이 들어갔다고 하는

데.. 그중의 10분의 1만 가지고도 어마어마한 사업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이런 생각 해 보면 그런 기능들이 꼭 필요한 것 같고요. 정보공개 철제하겠다.. 이게 참 획기적으로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공직자들은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겠죠. 우리나라 '행정정보공개법'에 의하면 아주 일상화 되어있는데 시민단체가 정보공개 청구하면.. 피청구조치 행정기관은 아무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어야 하지 않는게 아닙니다. 공개하기 싫으면 공개 안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처벌할 수 없고요. 그 다음 단계가 시민단체가 소송을 합니다. 이런 일이 계속 되풀이 되는데.. 이런 것을 좀 막고 다만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은 빼고 원칙적으로 한다면 힘들긴 하지만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변화의 시작을 해가는 자리로 서왕진 특보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뒤에 계신 분들이나 생중계 TV로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 앞에 멋있는 개가 자고 있습니다. YMCA 100년 역사상 처음으로 개가 참여한 토론회입니다. 어쨌든 오늘 토론회는 의제가 많이 쏟아져 나와서 다소 무겁게 진행이 되었습니다만..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끝내기 전에 오늘 참여하신 분들 중에 아까 심상용 교수가 발제하신 내용이 서울 시정이라고 하는게 국방과 외교를 빼면 거의 다 시민들의 삶을 다루는 것이죠. 특히 한마디로 요약하면 '복지'입니다. 복지 안에 교육도 있고 시민 안전도 있고 주거도 있고 장애인, 청소년, 여성.. 다 들어가 있죠. 그 내용 중심으로 주로 고려해 보아야 할, 또는 추진할만한 과제들을 제시해 주셨고요. 다 다루지 못했습니다. 짧은 기간안에 200자 원고지 거의 200장을 쓰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혹시 코멘트 하시거나 이런 정책좀 해달라고 하실 분 있으면 짧게 말씀해 주시면 몇 분 말씀드리겠습니다.

## <마무리 발언>

### 신종원 실장(사회자):

패널 분들에게 1분씩 답변할 기회를 드리고요. 스킵하셔도 됩니다. 임 교수님부터..

### 임승빈 교수(토론자):

저는 제일 필요한 것은 역시 행태도 변해야 하고 제도도 변해야 되는데.. 제가 행정학자라서 그런지 제도가 변하면 행태도 변한다고 봐요. 만약 오바마가 아프리카 케냐에 있었으면 오바마가 절대 될 수 없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제도 만들기가 필요한데 그게 결국은 시민의 의견을 얼마만큼 객관화 시키고 그게 집행까지 갈 수 있게끔 전달시키느냐.. 그 과정에서 누가 모니터링 하고 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 것이냐에 대한 시스템을 빨리 만드는게 중요하지 않는가.. 내년 1월초 집행에서부터는 당장 가동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이광재 총장(토론자):

글로벌 재정위기 많이 나왔고, 부동산 경기 위축 많이 나왔는데... 한국 사회의 성장 엔진이 과연 복지 확대 기저를 지탱해 줄 수 있는가가 사실은 가장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박시장님한테 제안을 했던 게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에 좌절하지 마라' 이러한 것으로 얘기를 한 거지.. 시장님이 성공하셔야 서울시민들도 사실은 행복한 거니까요, 어떻게 되었건 출범을 했으니까... 그 부분에 말씀을 드렸다는 거 하고요.

오시장님 별명 여러 가지 중에 좀 안 좋은 별명 하나가 '오계단'이라는 별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식목일 때 시장님 산에 올라가시는 게 불편하시다고 하루 전날 공무원 선생님들이 계단을 놓으셔가지고 하루만 놓았다가 해체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장님이 시정하실 때 관료중심의 사고에서 좀 벗어나시거나 시민 쪽으로 좀 내려오시는 게 굉장히 반면 교사하는 데 중요하겠다고 보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숭실대 강완택 교수님이 2003년도인가, 2004년에 내놓은 논문 중 하나가 '프랑스 정부의 동거정부'에 대한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서울시정에서도 굉장히 참고가 될만한 논문이라고 봅니다. 동거정부를 구성해야 되는 서울 시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참고하시면 좋은 시정에 기초를 잡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 **서왕진 정책특보(토론자):**

짧게 아까 의견 나오신 것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실제로 우리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구조적 한계 때문에 고통 받는 분들이 오히려 그 구조를 지탱해주고 지지해 주는 이런 것에 대한 안타까움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20대는 다행히 뭔가 새로운 상황으로 뛰어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주 가난한 분들, 이런 분들이 어떻게 거기서 조금 변화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교육이라는 것이 뭐 주입을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제대로 전달이 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특히 그 과정에서 풀뿌리... 지역에서 실제 그분들하고 동고동락하면서 활동하시는 풀뿌리단체, 또 시민단체들의 참여와 역할,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것. 그 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심교수님도 시민사회의 활성화위원회를 말씀하셨습니까마는 그런 부분들이 역시 굉장히 강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심상용 교수(발제자):**

제가 발제를 했으니까 많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서왕진 박사님, 줄지에 공무원이 되신 것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사실 줄지에 발제문을 쓰느라고 엿그제 밤을 꼬박 새웠거든요. 왜 써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썼어요.

오늘 여러 가지 나온 얘기들 중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포퓰리즘 얘기가 나왔는데요. 제가 공화주의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말을 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 시민의원이 평민들에게 너무 많은 권력을 주면 지대추구를 해서 평민정으로 전락한다는 중의정치의 표현이에요. 정치인이나 언론인이 이런 표현을 쓰면 저는 떨어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굉장히 민주주의와 시민권에 대한 도전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그리스어에서 파생한 용어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시민을 모독하는 표현이거든요. 이런 표현은 거론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주민의견을 좀 이야기 했는데, 제가 발제에서 간단하게 거론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서울도 마찬가지고 주민 발안 시스템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례 재정 및 개폐 청구권이 유유하게 도입됐는데 아마 발효 요건이 굉장히 엄격하고 이게 조례를 중심으로 접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주 유연한 정책을 제안할 수 없는 구조래요. 그래서 이 발안 시스템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이것을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약이 불충분하고 정책의 완결성이 부족하고 하는 문제를 거론을 하셨는데, 이것은 두 가지 맥락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보궐선거가 갑자기 생겼고요, 졸지에 나오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미리 준비해서 차곡차곡 해서 나온다는 것이 사실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기존 정당 후보나, 이를테면 한나라당의 나경원 후보가 그랬다면 지난 10년 동안 서울시정을 했던 집권당이고, 서울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왜 공약의 완결성이 부족하냐 이런 지적을 할 수 있지만 적절하지 않은 지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 정책에서 미세 조정만 접근을 하면 완결성을 갖출 수 있지만 혁신적인 접근을 하면 당연히 파격적인 시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은 개방적이고 따뜻한 시선으로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서왕진 특보님이 복지예산을 얘기하셨는데, 제가 말한 근거는 이것입니다. 서울시 복지예산 기준이 22% 정도인데, 전국 시, 도중에서 가장 많이 지출하는 곳이 30%가 조금 안 됩니다. 28~9%쯤 지출하는 시, 도가 있어요. 그런데 서울의 자체 예산 비중이 시, 도보다 평균 15%가 넘습니다. 산술적으로 보면 50%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물론 자체 예산이 비중이 높은 게 다 복지예산으로 못 쓰겠죠. 교육청 지원, 여러 분야로 가야겠지만 산술적으로 볼 때 최소 50%는 가능하구요. 서울시는 개발 수요가 없습니다. 다른 전라도나 이런 데는 개발 수요가 많지만, 개발 수요가 사실상 소멸된 데예요. 더 이상 메트로폴리탄이 확대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린 거고, 물론 이제 부채도 갚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다 여기다 쓸 수 없는데, 그래서 제가 발제 할 때, 처음에 가벼운 마음으로 발제 한다고 했잖아요? 그건 아마 시정을 하시는 분들이 거르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시민교육 문제는 제가 서울시 차원에서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기금 조성해서 '민주시민교육'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만들자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학교 교육에서는 사실 교육청사업이라 제가 구체적으로 거론을 안 했는데 아마 서울시 교육청이 민주시민교육을 확대할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교육협의를 잘 해서 하면 학교와 생활세계 양측에서, 대개 지금 민주시민교육이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하는 데가 재정이 취약하기 때문에 외부 프로젝트를 받아서 간헐적으로 하는 수준이거든요. 이래가지고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으니까, 새 시장님도 사실상 옛날에 시민사회 활동하실 때 저랑 민주시민지원법을, 제가 법안을 만들고 그래서 협의하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무엇보다 잘 반영하실 수 있을 거라 많은 기대를 갖고 있고, 저나 YMCA는 오랫동안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을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진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합니다.

### **신종원 실장(사회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정에 관한 오늘 3시간 20분에 걸쳐 많은 정책 제안과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정이라고 하는 게 여러 선생님들이 말씀 하셨지만 서울시민의 삶을 보살피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 정책은 크게 나누면 돈과 권한에 관한 배분,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요.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서울시가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발전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복지, 2부 토론에서는 주로 복지나 서울시민의 살림살이 생활에 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보수나 진보나 혹은 시장자유주의자나 또는 어떤 경제시장에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을 옹호



하는 쪽이나 간에 소위 기회의 균등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어려운,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도 기회는 균등하게 가져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보는 사례들을 보면, 예를 들면, 같은 대학을 다니는데 그럼 기회의 균등이 된 거가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학생들은 한 학기 아르바이트를 해서 휴학을 하고 그 다음 돈을 벌어서 다음 학기에 또 등록을 하고, 밥 먹듯 휴학을 하고 제대로 졸업 못하고 한 친구들 하고, 부모님의 지원으로 여유 있게 대학 다니는 친구. 어떻게 기회가 균등한 것인가? 그게 기회의 균등인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까지 살펴가면서 서울시가 어떤 외형적인 기회의 균등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필요한 곳을 어루만져 주고 또 부족한 것을 채워가는 그런 시정으로 사람을 중심에 놓고 하는 시정으로 바뀌어 가야 된다. 그런 주문들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 틀에서는 시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주인이 되는 그런 시정으로 가야 된다. 이런 큰 전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그렇지만 지금의 경제 현 상황이나 또 정치 환경이 녹록치 않다. 특히 내년 같은 경우, 참 어려워질 것이다. 그런 예측을 하면서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박원순의 서울시정이 잘 준비하고 체계를 만들고 잘 대처해 나가야 된다. 이런 주문과 염려도 있었습니다.

또 이런 과정에는 서울시민, 여기에는 공직자도 포함이 됩니다만, 서울시민들의 참여 감시, 또는 조언 이런 것들이 같이 갖춰져야 나름대로 새로 의미를 부여하는 이런 시정, 서울시정이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긴 시간 3시간 20분 가까이 지났는데요. 그동안 자리도 불편하고 그런데 끝까지 자리하신, 모든 참여하신 분들께 감사하고요. 우리 YMCA 안창원 회장님, 또 여러 YMCA 회원님들 함께해 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토론회를 마치고, 오늘 내용들이 서울시정에 또 잘 반영이 되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Session 2 토론 끝**